

내 '마음의 건강' 은 몇점? 영혼위해 얼마 투자했나...



◀혜곡스님은 '내생에는 지옥중생을 구제하고 싶다'는 서원을 밝힌 바 있다.

지 않는 사진이고, 어느 생에 가더라도 정신적인 세계에서 결혼할 적에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린 합부로 살 수가 없습니 다.

열라대왕이 지옥행과 극락행을 결정할 때 그 점수를 보고 하는데, 30점 미만까지는 지옥으로 가고 70~80점이 넘는 사람은 극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40점쯤 되는 이게 문제입니다. 50점만 넘으면 인간 세상 중에서도 좋은 데로 태어나는데, 40점쯤 되는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려니 점수가 약간 아깝고 인간 세상으로 보내주려니 이게 또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열라대왕이 물 습니다. 당신이 태어날 수 있는 부모는 저 부모, 요 부모, 이 부모밖에 없습니 다. 점수가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다 하고 내버려 두 면 그건 운명뿐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해서 운명을 바꾸는 것을 인연법, 불 교에서 운명을 개척하는 법입니다. 곧 인생 점수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천상이 뭉뚱이는 내 가 아니고, 참나가 누구나 하는 실상론, 실체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체론에 들어가려면 인간들의 언어 를 가지고는 표현이 어렵습니다. 음양 존자가 조주 스님에게 물기를, "한 물건도,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어찌 해야 합니까?" 하니가 "놓아버려라" 했습니다. 놓아버 리는 것을 내 마음 편리하다. 내 마음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하 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 아온 인상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욕망이 하자 는 대로 살아왔지 내 마음, 내 영 혼을 위해서 과 연 얼마나 투자 했나 이 말씀입니 다. 이 세상에 올



“극락으로 가겠느냐” 물었을때

“내마음의 고향에 가겠습니다”

답할수 있는 당당한 불자되세요

자, 여러분들 바다에 한 번 가보십시 다. 바다에 가 보면 파도가 첩첩할씩 치 는데, 바닷물이 우리 마음의 세계라면 파도는 망상입니다. 그럼, 그 파도가 어 디서 나왔습니까? 바닷물에서 나온 것 입니다. 그러면 그 바닷물에서 나온 거 라고 해서 파도가 곧 바닷물이요, 바닷 물이 곧 파도이기 때문에 다짐으로 들 아가기 위한 노력을 안 해도 된다? 그 건 아닙니다. 이대로가 부처니까 안 해 도 된다? 깊은 잠 속에만 가도 내가 어

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그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파도가 없어집니까? 바람이 끊어져야 됩니다. 우리 몸 에서 바람이라면 뭘니까? 탐 · 진 · 치 삼독에서부터 108번뇌를 바람이라고 합니다. 108번뇌를 무념, 즉 아무 생각 없이 바람이 끊어진 잔잔한 바닷물로 들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말아버릴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 내 인생 점수 가 몇 점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오늘부터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를 볼 게 아니라 나 한 번 다스려보자, 내 마음 한 번 다스려보자. <금강경>, <법 화경>, <원각경>에 나왔듯이, "부처님 어떻게 내 마음을 항복받고 어떻게 내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길들여야 됩니까. '응여시주(應如是住) 여시항복(如是降伏其心)이니라.' 그리고 저녁에는 지지지지- 소리가 날 때까지 텔레비전을 볼 게 아니라 아홉시, 열시가 되면 딱 끄고 앉아서 30분 정도 자기 자신이 '나는 오늘 무엇을 했는가' 하고 회두 참선을 하든 지, 열불을 하다가 잠자리에 들어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다시 확장 시절로 돌아갈 수 없고 어제로 돌아갈 수 없듯이, 오늘 하루 잘못 산 것은 영원히 잘못 산 것으로 남 기 때문에 텔레비전 연속극 좀 적게 보고 내 마음의 점수 한 번 올려보자 이 말씀입니다. 회두 참선을 해서 마음 수행을 하든지, 열불을 부지런히 하든지, 아니면 남이 내 마음에 맞기를 바랄 게 아니라, 나도 내 마음대로 못 하는데 남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해, 내가 저 사람에게 얼마나 맞고 있는가. 항상 내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 마음의 점수는, 인생 점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바로 멀리 있는 관세음보살을 찾기도 내 마음에 있는 '회두'라는 관세음보살을 깨우면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고 또 성취되 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극락으로 가겠느냐 연화대로 가겠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그런 데 안 가요. 내 마음 고향 갈 겁니다" 하고 열라 대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이런 부처님 법을 믿는 불자들이여, 항상 공지 를 가지고 당당한 불자의 길을 갑시다.

정리=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혜은스님

로버트 풀집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 은 유지원에서 배웠다> 라는 책이 이런 구절이 있다.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 하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네가 어 지럽힌 것은 네가 깨끗이 치워라. ..."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 힘든 일 이다. 세간에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며 기본으로 행해야 하는 것을 유지원에서 배우는 것이라면 우리 출세간에서 사는 수행자들은 초심시절인 행 자 시절과 확인시절에 배우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에게는 초심을 다지고 평생 수행자로서의 길에 나침반을 제시한 어른이 계시다. 황도 운문 사 문수선원장으로 계시는 혜은스님이다. 스님 과의 인연은 오래 전 행자시절부터다. 이틀만 나 한기도 도량인 사리야에서 원주소임을 보던 때 였다. 외유내강이라는 말이 스님을 잘 표현해 준

"진명야! 선지식은 항상 역순의 경계에 함께 있단다. 순경계의 선지식 보다는 역경계의 선지 식이 네가 반듯한 수행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는 데 좋은 거울이 될 것이고 너를 단단한 수행자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러나 강원에 가면 모든 대중 스님을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하심하고 인내하며 살도록 해라. 그것이 수행자로 살아가는 첫째 조 건이다" 라고 하셨다. 오직 부처님과 역대 선사 들처럼 반듯한 수행자만 좋은 선지식이라고 생 각했던, 아직 마음이 어린 나에게서는 참으로 어려 운 말씀이었다. 어떻게 언행이 바르지 못한 사람 이 선지식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생각했다. 강원에서 많은 대중이 부처님처럼 보이고 역경계가 '참 선지식'이라고 느낄 때 나는 비로소 스님의 말씀 을 마음 깊이 실감할 수 있었다.

"스님, 대중을 부처님처럼 볼 수 있는 눈을 갖 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더니 오하라 "네가 그렇게 알아 들어주니 고맙다" 라고 하셨다.

한참이나 어린 아랫사람이지만 합부로 대하 지 않았고, 조용하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스 님의 성품은 인자하신 수행자 그 자체다. 휴지 한 장도 아껴 쓰고 주인 없이 흘러가는 물도 합 부로 넘치게 쓰면 안된다고 하시는 혜은 스님은



그림·문병성

다고 할까. 작은 체구에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 는 지, 아마 공심으로 살아오신 힘이 아닐까 생각한 다. 산 중턱에 자리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리야 중창봉사를 원만히 회향하고 운문사 주지 소임을 역임하셨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수행 자의 말과 행동은 그 수행자가 품고 사는 사상의 표현일 것이다. 내가 운문사 강원에 입학하기 전 이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내면에 크고 작은 갈등 을 품고 있었고, 승가공동체에 대해 회의적이었 다. 그 일방향 분발심 때문에 강원에 가기 싫어하 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아셨는지 조용히 부르셨다. 아랫사람이 견책 받을 만한 잘못을 했을 때 스님 은 항상 나지막하게 타이르셨다. 부처님 말씀이 나 선사스님의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 이해를 시 키고 잘못을 바로 잡아주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당신 수행생활에서 얻은 지혜로운 말씀은 설 득력이 있었다.

시주물 아껴쓰고 남담기 '우선'

누구에게나 존대...후학들에 귀감

시은(施恩)을 대할 때는 누구보다 엄격하셨고, 작은 토크에서 공부하다 도움을 청하는 스님들 이 있으면 소리 없이 보살피셨다. 운문사 주지 소임을 보고 계시 할 때 어느 정월에 인사를 드리 러 갔더니 소임을 수행하시는 토크이 사경을 하 고 계셨다. 마음발을 깔고 계시는 당시 생활의 질서가 농부의 손길에 잘 정돈된 밭이랑 같으신 분이이다.

스님은 어느 해인가 암 진단을 받아 그동안 두 번씩이나 내 수술을 받으셨다. 두번째 수술을 받 고 빠르게 회복을 하시고난 후 남은 생은 덤이라 고 최선을 다해 사신다고 하셨다. 누구나 사람이 라면 크고 작은 병마에 시달리며 살기 마련이지 만, 거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암이라는 병마를 거뜬히 물리치고 지금도 문수선원에서 대중들과 함께 죽비소리에 따라 앉으시는 여여 하신 스님 의 모습은 후학들의 귀감이 되는 선지식의 모습 그대로다.

진명스님은 1983년 운문사로 출가, 84년 정심 스 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운문사 승가대학과 동국대선 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선학과를 수료했다. (사) '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장 역임했으며 현재 불교공 송의 '차한전의 선율'을 7년째 진행하고 있다.

대구 대승불교대학 · 정토사 범음·범패 수강생모집

대승불교사상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열린 기도전법도량 대승불교대학에서는 불교의식 전반에 걸친 강좌를 마련하고, 아래와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스님 및 일반 재가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강의내용

- ▶ 기초과정(3개월) : 도량석, 아침종성, 예불, 상강례, 사시불공, 신중기도, 지장불공
- ▶ 전문과정(1년) : 관육, 대령, 전지식, 관음시식, 사다림 의식, 구병시식, 예수재 의식
- ▶ 기타강좌 : 천수바라, 나비춤, 복다루기, 경쇠, 징, 목탁 치는 법 등

강의장소

- ▶ 대승불교대학 3층 법당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월촌지하철역 사거리)

개강일시

- ▶ 2003년 8월 말(수시모집)

강의시간

-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4시간) 전문반
-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까지(3시간) 기초열불반

대승불교대학 중무소 전 화 053)622-0333
휴대폰 011-699-9120

불교의식(범음·범패) 제2기생 학인모집

본 대구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초중급을 막론하고 불교의식 열불, 또는 범패를 배우고자 하시는 분이라면(스님)은 물론 현재 사찰운영에 어려움 을 겪고 계시는 교인 또는 범사님게서도 본 교육원을 이수하신 후에는 어 무런 불편없이 운영하실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여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과 정

- ▶ 의식 초급반(3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월, 화요일)
 -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세력, 도량석, 종성열불, 상단 세백예불, 저녁예불, 아침송주, 저녁송주, 상단불공(세불동행), 신중화공, 행선숙원, 불공숙원, 관음시식, 배송, 사비율법 및 초발심 자경문
- ▶ 의식중급반 (5개월) 주 2회 강의(매주 수, 목요일)
 -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까지 (2시간)
 - 강의내용: 시련절차, 천도, 49계 재중원, 전점안법, 설교의식, 사왕불공, 시식, 배송, 다비련, 방생의식, 불상 및 명화 점안법, 예수제이문, 구병시식 등
 - * 재장엄법설치법, 명가축원문작성법, 위계, 지의, 전, 작성법
- ▶ 작법반 : 일반(5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일요일)
 - 강의시간: 오후 3시 ~ 5시까지(2시간)
 - 속성(2개월) 주 1회지도(매주 금요일) 시간: 오후 1시 ~ 4시 30분(3시간 반)
 - 종 목: 천수바라, 도량제(나비춤), 사다리나(가지계) 회의제전연마라
- ▶ 역학반(10개월) 주 1회 지도(매주 수요일)
 - 강의시간: 오후 1시~3시 (2시간) * 특별강사초빙
 - 시물특강반 내용 : 태징, 경쇠, 북치는법(현수북, 장근북, 장엄열불북, 요잡쇠)
 - 기 간: 3개월 주 1회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2시간)
- ▶ 속성반: 의식, 작법, 사물(짧은 기간에 이수하실분은 별도 등록 요함)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 교육원
대구광역시 동구 선암 3동 167-14(2층) ☎ 053)955-7725
원장 주동주(동현) 합장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재물 생산·연구에 임하는 지혜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에게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도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애용승복 직원일동 -

승복

- 적삼, 조계, 바지 W160,000
- 동방, 바지 W160,000
- 두루막 W140,000
- W60,000

◆ 모직(율 50%) ◆ 관복 ◆ 순면(무늬있는 직물)

카복

- 구김이 없고 색채가 용이한 재질 A. W130,000 B. W160,000
- 리 W160,000
- 모직 W160,000

겨스

- 리온트방 W20,000 ~ 35,000원
- 자라니방
- 울방

해동승복
대구광역시 동구 선암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인연의 시정일 생을 40%할인해

* 직삼, 기사, 바깥 및 기방의류는 뒷번호를 참조하십시오.

영험량

희마승 예린

불보살님 가피력

- 참회하는 마음
- 용서하는 마음

영험사례

- 15년전 죽은 삼촌 점신
- 26년전 죽은 어머니 점신
- 20년전 낙태혼 점신
- 18년전 죽은 언니 점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해원사 초하루, 18일 법회
031-336-3734 · 3735